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위원 (kmj9612@bnkfg.com)

2017년 세계경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금년(2.7%)과 비슷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금년 추정치와 같은 1.6%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은 조선 및 기계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철강, 석유정제업 증가세 확대로 금년보다 생산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업은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며 건설업의 경우 금년도 분양물량을 고려할 때 전국과 달리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에는 미국 신정부 정책방향 및 금리인상, 중국 부동산경기 및 기업 부채, 브렉시트 협상 등이 대외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한층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예의주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경제,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성장 전망

2017년 세계경제는 금년(3.1%)과 비슷한 3.2%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금년 1%대 중반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2%대 초반대로 상승하고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유로 및 중국경제의 경우는 내년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의 경우 브렉 시트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및 투자 위축으로 성장률이 금년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경제 구조개혁 지속 및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6% 초반대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IMF (2016.10)	OECD (2016.11)	IMF (2016.10)	OECD (2016.11)
세계전체	3.3	3.4	3.2	3.1	2.9	3.4	3.3
선진국	1.2	1.9	2.1	1.6	-	1.8	-
(미국)	1.7	2.4	2.6	1.6	1.5	2.2	2.3
(유로)	-0.3	1.1	2.0	1.7	1.7	1.5	1.6
(일본)	1.4	0.0	0.5	0.5	0.8	0.6	1.0
신흥국	5.0	4.6	4.0	4.2	-	4.6	-
(중국)	7.8	7.3	6.9	6.6	6.7	6.2	6.4
(인도)	6.6	7.2	7.6	7.6	7.4	7.6	7.6
(브라질)	3.0	0.1	-3.8	-3.3	-3.4	0.5	0.0

자료 : IMF(2016.10), OECD(2016.11)

2017년 국내경제 성장률, 2.8%로 금년과 비슷할 전망

2017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2.7%)과 거의 같은 2.8%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할 때 경제활동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민간연구소의 전망과 같이 성장세가 2%초중반대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경기취약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기관	2016	2017	전망기관	2016	2017
한국은행(16.10월)	2.7	2.8	IMF(16.10월)	2.7	3.0
해외투자은행(16.10월)	2.7	2.5	OECD(16.11월)	2.7	2.6

주 : 1) 해외투자은행은 은행별 전망치 평균, BNP Paribas(2016년 2.2, 2017년 2.4), Barclays Capital(2.6, 3.0), BOA_ML(2.7,3.1), Deutsche Bank(2.4, 2.9), Goldman Sachs(2.6, 3.3), Morgan Stanley(3.6, 4.1), Nomura(2.4, 2.5), Citi(2.5,2.4)

자료 :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수출은 미국 및 일부 신흥국 경기개선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저금리 지속 및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담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공급과잉 및 가채부채 우려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및 SOC 투자 축소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동남권 경제, 1.6% 성장 전망

2017년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1.6%의 저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지속된 1%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철강, 석유정제업은 생산 확대가 기대되나 조선, 기계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 및 석유화학도 미약한 성장에 그치면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은 생산수준의 하방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시장 성장둔화 및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동남권지역은 금년도 8만호에 달하는 높은 분양물량(2014~15년 평균 6.3만호)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국은 금년 분양물량이 약 38만호로 최근 2년(2014~15년) 평균 42만호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¹⁾²⁾

(전년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남권	1.9	1.7	2.0 ³⁾	1.5	1.6	1.6
전 국	2.3	2.9	3.3	2.6	2.7	2.8

주 : 1) 동남권 지역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치(2016년) 및 전망치(2017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16년) 및 전망치(2017년)

3) 소수 둘째자리까지 확인하면 성장률은 1.98로 1%대 성장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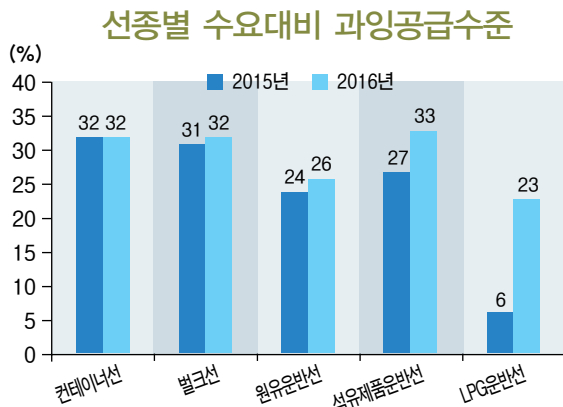
동남권 주력산업 동향 및 전망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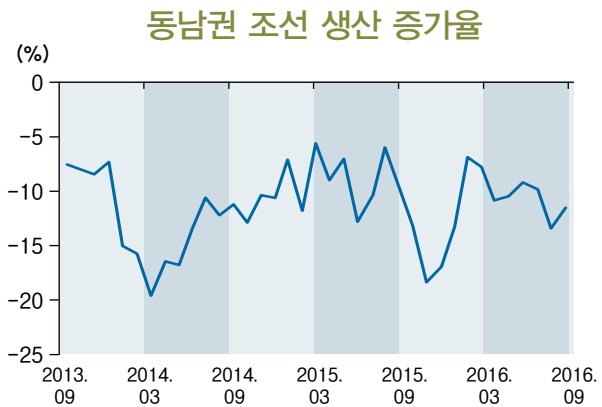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Clarksons에 따르면 2016년 1~8월중 전세계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68.1% 급감(799만CGT)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8월말 현재 수주잔량(9,770만CGT)은 2005년 4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 조선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해상물동량 대비 선박량 초과공급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Danish Ship Finance(2016.5월)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주요 선종별 과잉공급 수준은 전년보다 대체로 상승한 23~33%로 나타났다. 과잉공급 상황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larkson(2016.9월)은 2018년 이후에야 선박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7년 국내 조선업도 세계 선박량 과잉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수주량이 전년의 1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2013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인 약 1.5년치 일감(2,330만CGT)만이 남아있어 내년 조선업 생산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Danish ship finance (2016.5)



주 : 3개월 이동평균(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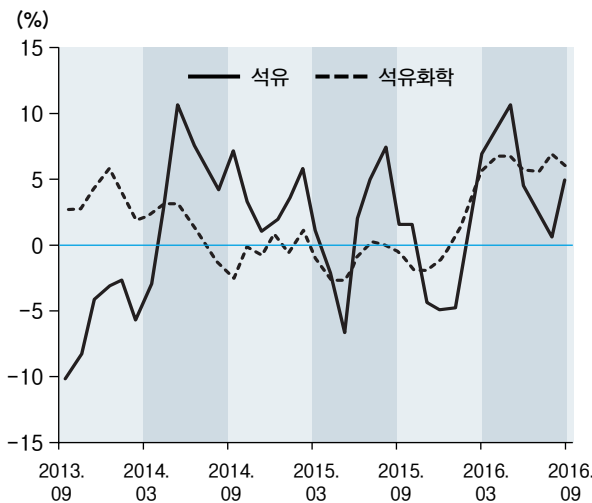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석유 및 석유화학

동남권지역 석유제품 생산은 저유가에 따른 미국, 중국 등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미국 경기회복,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석유부문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전통 에너지 환경규제 완화 정책시행 가능성은 원유가격 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중 원유가격(WTI)에 대해 EIA(미국에너지관리청, 2016.11월)는 배럴당 49.9달러, 글로벌 투자은행은 53.3달러로 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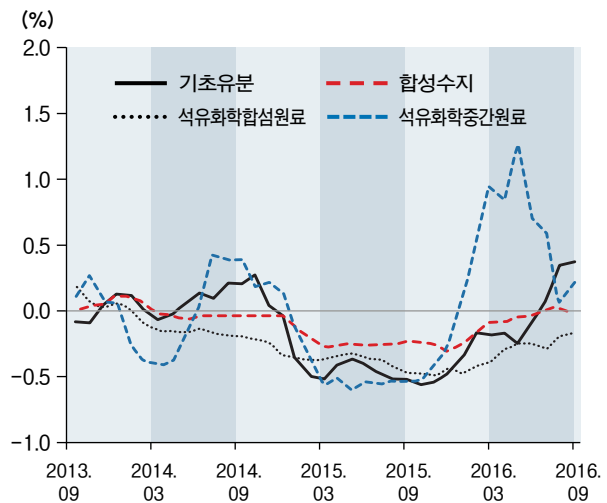
석유화학 부문은 독일, 중국 등 경쟁국의 공급 축소 및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선제적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금년중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내년에는 중국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에틸렌 생산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부진 및 대외 일시적 공급 축소 요인제거로 국내 석유화학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석유 및 석유화학 생산 증가율



주 : 3개월 이동평균(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석유관련품목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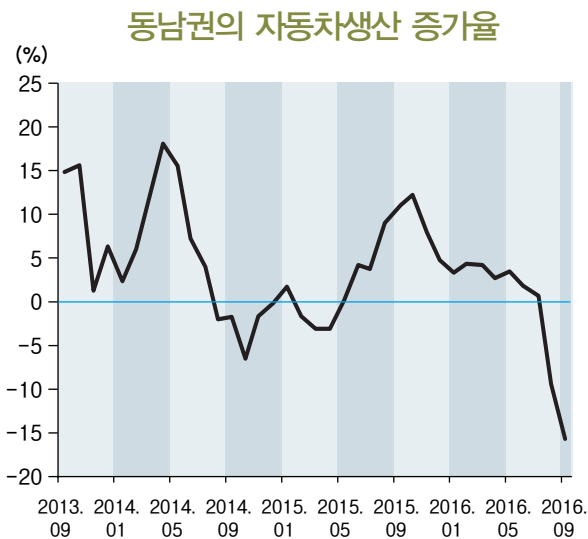
주 : 1) 3개월 이동평균(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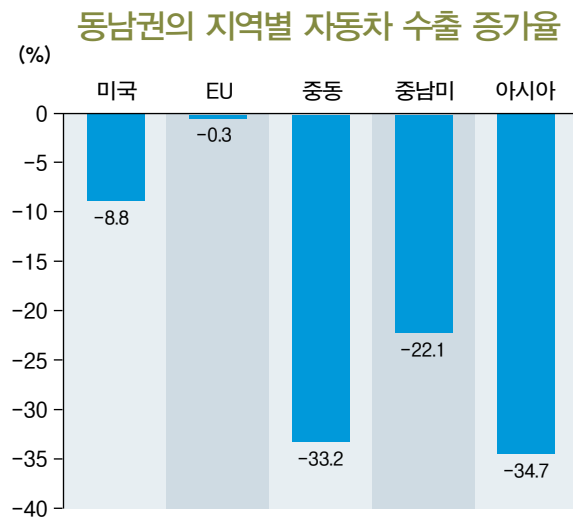
금년 1~9월중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소비세 인하정책(2016.6월말 종료) 및 신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의 내수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수출부진(15.1% 감소)으로 전체 판매는 9.5% 감소하였다. 수출의 경우 미국(-8.8%), EU(-0.3%), 중동(-33.2%), 중남미(-22.1%) 및 아시아(-34.7%)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2017년 자동차산업은 자원수출국 수출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부진, 중국 경기 및 미국 수요 둔화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시장의 경우 금년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종료(2016.6월말)에 따른 기저효과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2016.10월)는 2017년 세계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LMC AUTOMOTIVE(2016.7월)는 금년 미국 자동차판매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내년에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 : 3개월 이동평균(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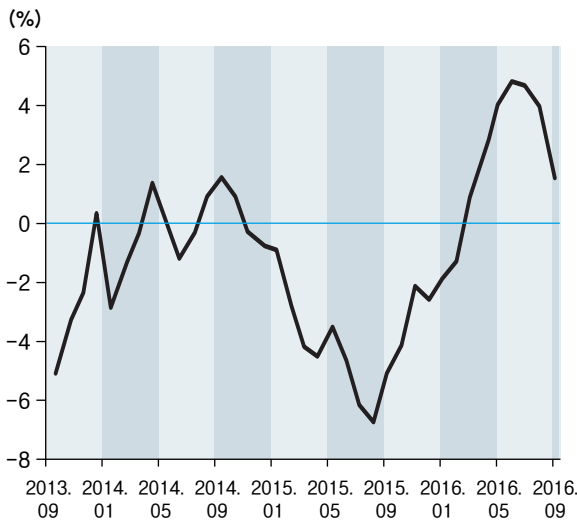
주 : 2015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철강

세계 철강업은 중국의 철강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1~10월 기준) 동남권 철강 생산 수준도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다. Bloomberg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도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2016.11.14일 현재 5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도 동남권지역 철강업은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과잉공급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미국 셰일오일 개발 및 자원수출국 경기회복은 수요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전국과 달리 동남권지역은 건설투자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계철강협회(2016.10월) 전망에 따르면 세계 철강수요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금년 0.2%에서 내년도 0.5%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남권 철강 생산 증가율



주 : 3개월 이동평균(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전망

구분	세계 철강수요 전망 (%)			
	세계	중국	신흥 시장국 ¹⁾	아시아 ²⁾ ·오세아니아
2014년	0.7	-3.3	2.6	-0.9
2015년	-3.0	-5.4	1.9	-3.3
2016년	0.2	-1.0	2.0	0.5
2017년	0.5	-2.0	4.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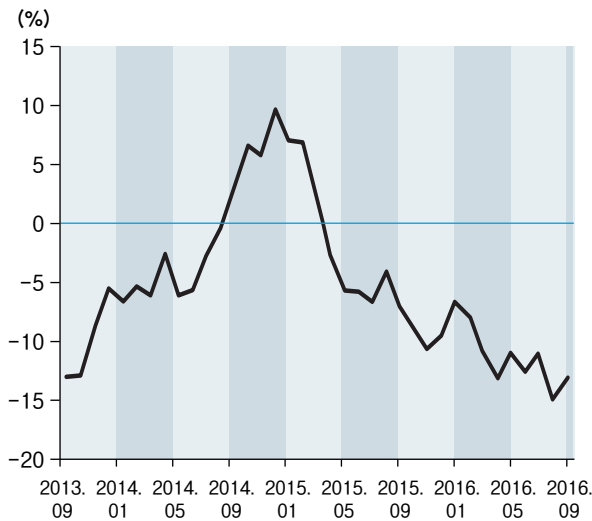
주 : 1) 2) 중국 제외
자료 : 세계철강협회(WSA, 2016.10월)

기계

금년 기계산업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기둔화 및 국내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생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동남권 기계생산은 2015년 7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1~9월중 생산수준은 전년동기대비 12.3%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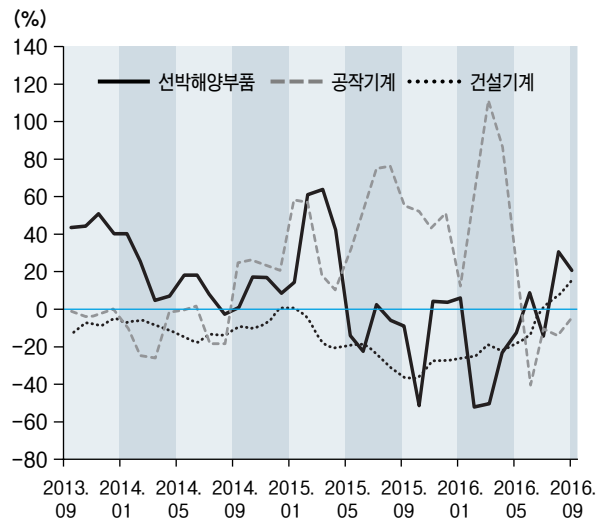
2017년에는 공작기계 및 엔진부품은 설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경기 부진 및 주력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2009년 1/4분기 제외)하고 있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2016.3/4분기 71.8%)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잉설비 상황에서 큰 폭의 신규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중국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과학원(2016.5월)은 시장과열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남권 기계 생산 증가율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동남권 기계업체 주력제품 수출 증가율



주 : 1) 3개월 이동평균(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7년 리스크요인 점검 - ① 대외 리스크

미국 신정부정책 및 기준금리 인상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친기업 환경조성,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상당한 가운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시행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고 있다.

자국산업 우선주의, TPP 탈퇴 및 한미 FTA 재협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시 향후 5년간 한국의 수출손실은 269억달러에 달하며 일자리는 24만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한편 트럼프 신정부는 1조달러의 인프라투자 및 15% 수준의 법인세 인하 등 재정 확대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대선기간중 공언한 바 있다. 이와같은 재정책대 정책은 내년도 2~3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달러강세 추이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Bloomberg에 따르면 주요 6개 IB들은 미달러인덱스가 2016.4분기 평균 100.6p에서 2017년말 103.9p로 상승을 예상하였다. 현재(2016.11.21일) 미달러인덱스는 101.2p로 2003.3.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달러가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일 경우 동남권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의 리스크도 우려된다. 국내의 경우 원화가 약세흐름을 보일 경우 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원화절상 압력 가능성도 있어 환율 방향성의 불확실성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경기 및 기업부채

중국은 투자·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서비스업과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6%대 중반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중국경제는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 등으로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IMF와 OECD는 2017년 중국경제가 6.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도 내년도 중국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부채확대, 그림자금융 및 은행 부실 등으로 영향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한국 금융연구원(2016.10.26일)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17년초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2016.10.19일)는 중국 각 지역이 부동산시장 과열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부동산 상승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Bloomberg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명목GDP의 101.7%에서 2015년 165.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2016.9월)는 투자의 비효율성을 표시하는 지표인 ICOR²⁾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한계고정자본계수)이 금융위기전(2002~07년) 4에서 2010~15년 6으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투자 비효율성으로 기업부채수준이 확대되고 이는 금융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지방정부 산하기관인 지방공사(LGFV)는 지방정부의 명시적·묵시적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발행 또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SOC건설이나 부동산개발에 투자(한국은행, 2016.5.3)

2)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일정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계수임.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 및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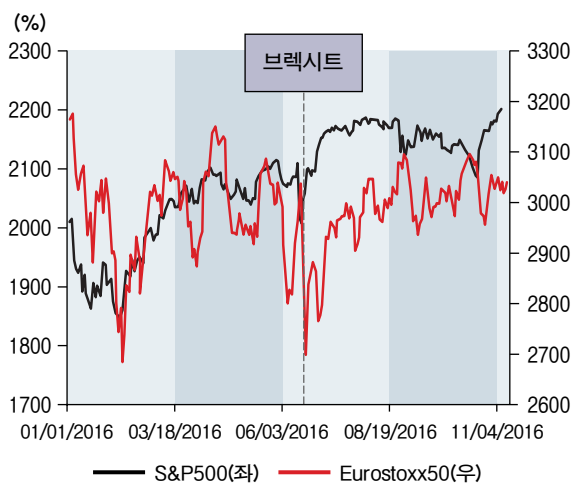
브렉시트

금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크게 요동쳤던 국제 금융시장이 단기간내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이는 시장참가들이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내년 3월말까지는 리스본 조약 50 조에 따른 EU 탈퇴의사를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에 통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브렉시트로 인한 내년도 금융경제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내년 3월 네덜란드 총선, 5월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 넥시트(Nexit), 프렉시트(Frexit)등 EU 붕괴 및 자국우선주의 성향 확대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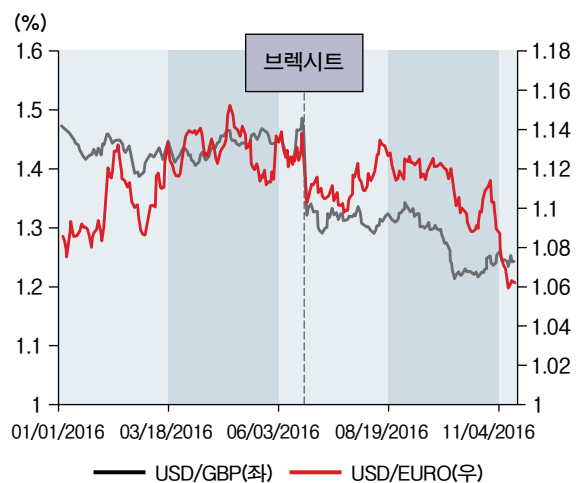
이와같은 우려들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제신용평가사 S&P(2016.11.11일)에서도 내년 EU 탈퇴협상이 시작되면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가능성으로 인해 영국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유로 주가지수



자료 : Bloomberg

파운드화 및 유로화 환율



자료 : Bloomberg

② 대내 리스크

주택시장

동남권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2013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6년 1/4분기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2015년중 3.3%에 달했던 상승률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2.5%로 낮아졌다.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가격추세 보다 앞서 2013년 1/4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들어 크게 위축되며 1~10월중 평균 거래량은 9,41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하였다.

내년도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공급과잉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상승세 둔화가 예상된다. 2017년 동남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6만8천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이며 최근 3년(2014~16년) 평균 입주물량(4만 8천호)의 1.5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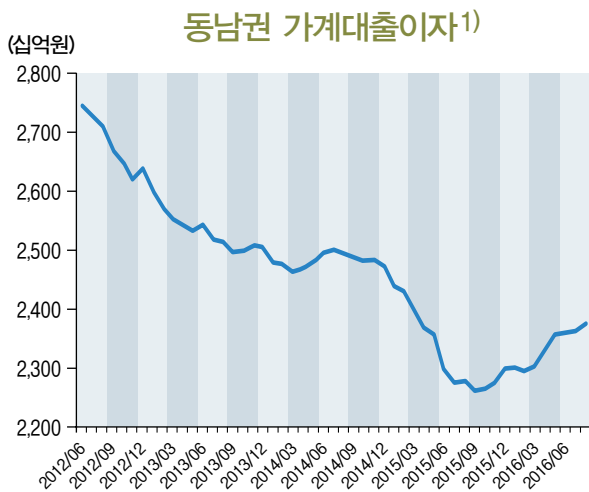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의 높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매매가격 상승세가 급속히 둔화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연구원(2016.11.2일)에서도 2011~16년 신규분양 물량을 감안할 때 공급과잉 상황에 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2017년부터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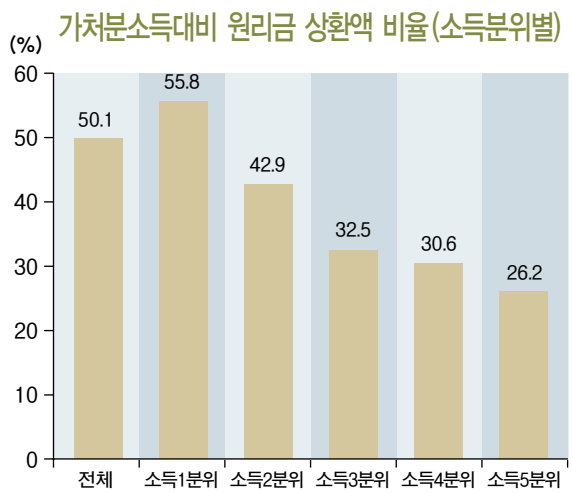
동남권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2016년 2/4분기말 현재 대출잔액(판매신용 제외)은 119.3조원 달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이 2015년 4/4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감소로 부채리스크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지역 가계대출이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2012년 6월 최고치(2조 7,448억원)에서 하락하여 현재(2016.8월, 2조 3,708억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특히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소비위축 및 가계대출 부실 우려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가구 기준으로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2년 22.3%에서 2015년 30.1%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55.8%에 이르는 등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5분위의 경우에도 가처분소득의 1/4 정도를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 대출잔액×가중평균대출금리 (예금은행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주 : 부채가구 기준(전국)
 자료 : 한국은행

[참고문헌]

Danish ship finance, "Shipping Market Review," 2016.5
 Financial Times, "Hard Brexit most likely outcome for the UK," 2016.11
 _____, "Property risks loom over China's economy," 2016.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_____, "Rebalancing in China—Progress and Prospects," 2016.9
 LMC Automotive, "Advisory Update – US Market," 2016.7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6.9
 건설산업연구원, "2017년 건설경기 전망," 2016.11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6.9
 미국에너지관리청, www.eia.gov
 세계철강협회, www.worldsteel.org
 중국사회과학원, "2016 부동산백서," 2016.5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경제전망," 2016.10
 한국자동차산업협회(www.kama.or.kr)
 한국은행, "최근의 중국 부동산경기 동향에 대한 평가," 2016.5
 _____, "경제전망보고서," 2016.10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2017년 자동차산업 전망," 2016.10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수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수수료 No! 계좌번호 No! **빠르고 편리한 썸씽송금**

sumbank by **BNK** 금융그룹

-  **썸씽 간편송금**
-  **썸씽 더치페이**
-  **썸씽 경조금 송금**



- ▶ 이용대상 : 썸뱅크 정회원(계좌보유)
- ▶ 이용한도 : 1회 30만원 / 1일 100만원
- ▶ 이용수수료 : 무료

썸뱅크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썸뱅크 iOS(아이폰) 다운로드



준법심의필 2016-504(심의일자 : 2016.11.16/유효기간 : 2016.11.01~2017.12.31)

BNK BNK금융지주

제2016-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성세환
 편집인 조성제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6년 11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